

덕진보건소 신축공사 공정률 12%

올 연말까지 기공공사 마무리 내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행

전주시 덕진권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덕진보건소 신축공사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은 유아 1동 명주골네거리 인근에서 추진중인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현재 약 12%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덕진보건소 건립공사는 오는 2021년까지 총 149억원을 투입해 유아동 명주골 네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덕진구 유아동 3가 747-80번지)에 지하1층~지상 4층, 연면적 6,961㎡ 규모로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소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휴막이 공사 등 기공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축되는 덕진보건소에는 진료실과 검사실, 예방접종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신축보건소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열린 치유공간인 테라피 가든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유아동 명주골네거리 인근에서 추진중인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현재 약 12%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은 덕진보건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가진 설명회.

나아가 시는 덕진보건소 건물을 열 전달을 최소화해 폭염과 열섬 저감에 효과적이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벽면 및 옥상 녹화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키로 했다. 덕진보건소 화장실과 조경수의 경우에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하는 건축물로 지을 방침이다.

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르신과 영유아 등 덕진구 주민들이 멀리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축공

사가 안전사고 없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완상구 편중을 완화하고 보건 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덕진보건소 건립에 만전을 기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학혁명 전주 상황 일지 ‘꽃심상’

‘호행록’,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서 최고의 대상 수상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전주의 상황이 담긴 일기와 전주 승암산과 전주 천의 지소(紙所, 종이를 생산하는 곳) 위치가 담긴 호행록이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250여점의 기록물에 대한 전주 시민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기록위)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꽃심상(대상) 2명을 포함한 총 3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출판인쇄 부문과 전주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출판인쇄 부문 꽃심상에 선정된 ‘호행록’에는 전주전을 따라 승암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지소’가 있고 초기집 3책과 기와 4책 등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담겨 있다. 또한 1894년 전후로 전주에서 살면서 작성한 일기인 ‘근사록’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 향후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해야 할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돼 꽃심상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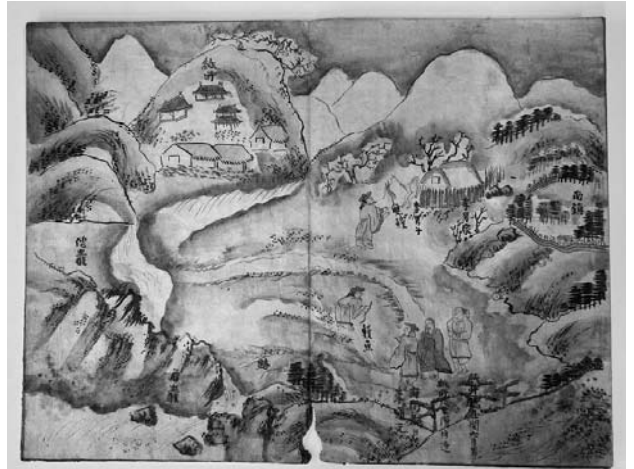
전주부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전주·전북 지역에 교사로 재직했던 개인 일괄 자료를 꽃심상에 선정됐다. 이 기록물은 1940~1980년까지 약 40여년 간의 개인자료로, 문서류(기록카드, 상장, 증서 등)에서부터 1965년 전주대학부설 초등학교원수원이 발행한 ‘원수원보’ 등 개인의

역사를 통해 전주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기록 자료로 평가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또 △서계서포간기가 부착된 목판본 아희원암, 전주완흥당 인쇄 무학(1968년) △천주교 호남발전사(전주교구청발행, 1964년) △전주시가계획면도(전주부, 일제시대 추정) △전주에서 발행한 문자유집, 전주발행 삼남일보(1968년), 새전북(1965년) 등 근현대 전주 관련 자료가 대동상(최우수)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 보령출판사에서 10년간 발행한 도덕월보 묶음집 △1944년 전주 초등학교 1학년 기념사진 및 1953년 졸업사진 △1960년대 전주공고, 다가산, 덕진공원 배정 사진 △전주소재 초·중·고 학창시절 앨범, 문서, 사진 등 개인 일괄자료 △1950~70년대 전동성당, 다가공원, 덕진공원, 고사동 오거리, 한벽투 터널 사진 등의 자료가 수집됐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12월 개관 예정인 ‘전주시민기록관’에 이번 공모전 입상작과 함께 2016년부터 차곡차곡 모은 전주 시민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한다”면서 “향후에도 개인의 기록이 전주역사의 반경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시민이 간직한 전주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의 축적을 위한 자발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호행록이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대상인 ‘꽃심상’을 수상한 호행록의 호행도. 승암산 자락에 지소(紙所)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좁은목에서 장어를 잡아 부친을 보양한 호재이아기를 그린 그림이다.

변사사건 원인 밝혀라... 전북경찰, 검시 조사팀 운영

법의학 등 전문지식 갖춘 8명이 2인 1조로 근무

변사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증진에 부합하는 일이다.

지난 21일 전북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사사건에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시 조사팀은 법의학, 보건학, 과학수사학 등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 8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

장에 출동해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추정하고, 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등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법관총을 이용한 사망시간 추정, 매장시체 발굴기법, 수중 증거물 증명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실례를 병행하여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통계시스템 및 전북경찰청 변사사건 접수 통계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2017~2019년)간 발생한 변사사건 4560건 중 자살이 1480건, 안전사고 사망 사건이 103건으로 나타났

다. 자살은 평균적으로 봄(27%), 여름(28%)에 증가하고, 겨울(22%)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안전사고는 가을이 42%(4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동절기 대비를 위한 공사와 농산물 수확이 증가해 각종 농기계 사용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과학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변사사건의 경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위로해주며 정성치안을 구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이 △주거급여 제도 홍보 △주거복지 주요정책 안내 △주거복지 관련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기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4인 가구 기준 22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비용별 수선비용(대보수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복지관을 찾아 주거복지 상담을 받은 한 주민(50세, 여)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발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냉장고 실외기 절도 30대 검거

21일 전주익산경찰서는 실외기를 절도한 혐의로 A씨(3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새벽 5시 경 익산의 길에 내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실외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 수상함을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루브르 사람들, “전주 한지에 반했어요”

전통한지 생산과정 견학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했던 전주 전통한지가 또 한 번 루브르박물관을 매료시켰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복원가와 조각가, 제지장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실 관계자와 세계적 종이관련 학자 11명과 국내 종이 협회 관계자 등 25여명이 팔복동 한지제조공장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전통한지 생산과정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전라북도 한지발 무형문화재이자 국내 유일의 한지발 제작자인 유배근 장인을 방문해 고유한지를 뜨는 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한지의 전통과 품질을 지켜 내는 도구인 한지발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방문단은 또 팔복동에 자리한 한지제조공장인 천일·용인·성일한지공장 등을 방문해 전주한지가 만들어지는 전체과정과 외발뜨기 초기기법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한지의 아름다운 색과 질에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특히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은 작품 안정화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전주한지의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살펴보고 문화재 복원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방문단은 전국 최초의 한지관련 R&D 연구기관인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한지산업에 관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실 관계자와 세계적 종이관련 학자 일행이 전통한지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새로운 시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한지가 문화재와 각종 기록문화의 복원과 보수 뿐 아니라 산업,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센터에 전시된 전주한지 작품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시는 이번 루브르박물관 관계자와 국내외 종이관련 학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에도 관계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주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주를 3번째 방문한 아리안 드 라 샤펠(Ariane de La Chapelle, 한국명 김만월) 루브르박물관 보존·복원 담당은 이날 “전통원료와 전통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주한지를 사용하

보니 질기고 치수안정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예술가치를 지속하기에 충분하여 문화재 복원용지로서 매우 훌륭한 소재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전주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주한지의 위상을 높이고 체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지는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기에 후세 사람들도 몇 백 년 동안 오직 전통방식만을 고수하며 지켜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울곧게 지켜 낸 전주전통한지가 루브르와 손잡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큰 쓰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년 4월까지 전주 신성장거점 수도관 개량 추진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룰 전진기지로 조성되는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과 전북혁신도시, 전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등 신성장거점에 공급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이는 전주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매설된지

하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총 22억8000여 만 원을 투입해 전미취수장에서 팔복정수장까지 3.8km 중 1.3km구간에 대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확장공사를 추진한

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해당구간의 노후화된 700mm구경의 도수관을 먼저 강성 또는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600mm 구경의 도수관도 800mm 구경으로 확장에 향후 공급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키로 했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급용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등에도 공급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김치문화관서 지속가능 미식도시 논의

유네스코 음식왕도도시인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주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해외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 김치문화관에서 1억4000만명이 가입한 세계적인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한 세계적인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스님과 함께 외국인 요리 수행자와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 전주 8미(味)를 활용한 사찰비빔밥을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주음식을 활용한 해외홍보 추진을 위한 사전 아이디어 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관

스님은 이날 콩나물, 미나리, 무, 호박고지, 황포동 등 전주8미를 사용한 사찰비빔밥과 감말랭이 북분자청 무침, 그리고 표고버섯 초침조림을 준비했다. 시는 또 정관스님과 함께 전주가 지속가능한 미식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최근 요가 및 명상 등 동양적인 철학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사찰음식을 포함한 한국적인 식문화와 음식을 문화로 이해하는 사상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만큼 전주음식을 활용한 국제 홍보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